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나다』(2005)

— 시울 出, 메리필드지음, 남청수·김성희·최남도 옮김, 493쪽
Merrifield, Andrew(2002). METROMARXISM: A Marxist Tale of the City. New York:
Routledge

김두환*

빌어먹을 주택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환경문제 속에서 종말론적 분노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길, 또는 처음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길 바라는 사람의 책이 있다. 원제목인 『도시마르크스주의(METROMARXISM)』에 비해 한층 섹시한(?) 제목으로 남청수 등이 번역한 메리필드의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나다』가 그 책이다. 이 책은 단지 강단에서 마르크스를 강의하는 학자가 아니라 시애틀과 퀘벡의 반세계화 시위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제3세계의 채무를 탕감하자!,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거리를 회수하자! 고삐 풀린 세계화를 굴복시키자! 거북이를 보호하자! …”는 구호를 찬성하고, 사람들의 연대를 지지하는 마르크스주의자인 메리필드 교수의 ‘마르크스주의와 도시주의의 변증법적 만남’에 관한 깊고 넓은 이야기이다.

마르크스주의의 눈으로 도시를 본다는 것, 그리고 도시주의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양자를 더 발전되고 풍부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준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저자는 서론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반란의 숨기고 싶은 반(反)도시주의적 비밀에 관해 언급한다. 여기서 도시는 부패, 지옥, 소돔과 고모라의 영역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으로 묘사된다. 농촌에서 농민들에 기반해 전개된 중국혁명,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구이를 부패와 압제의 지지기반으로 간주한 니카라과 해방전선, 그리고 거의 모든 도시를 거대한 공장으로 바꾸려 한 볼셰비키에서 저자는 마르크스주의 이름으로 표명된 반도시주의를 본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도시주의의 만남은 어느 쪽에서 시작하든 어렵고, 이래저래 망설임이다 결국은 모두 실패할 위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르크스주의적 반란의 반도시성과 달리 마르크스를 포함해 이 책이 다루는 8명의 마르크스주의자 그리고 메리필드 자신은 반도시적 마르크스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저자까지 포함해 이들은 모두 쑥스러움 없이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면서, 또한 주저 없이 도시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도시는 도시빈민의 비참한 삶, 번잡스러움, 단테적인 “탄식과 애통, 통곡”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다른 한편 어마어마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광채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도시는 전통적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지만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의 삶을 더욱 더 궁핍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8명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대 도시의 이러한 역설을 피해가거나 굴복하기보다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좋은 것에 숨어 있는 나쁜 것과 가장 나쁜 것 속에서 자라는 희망을 보고, 쓰고, 노래했다.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도시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8명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상과 삶이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의 구성도 변증법적이다. 이 책에서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발터 벤야민, 앙리 르페브르, 기드보르, 마뉴엘 카스텔, 데이비드 하비, 그리고 마샬 버먼은 앞선 사상의 정수를 이으면서 동시에 부정하고 보완한다. 마르크스의 도시에 관한 근본적이지만 단편적인 언급은 엥겔스에 이르러 도시마르크스주의로 완성된다. 벤야민은 엥겔스가 간과한 도시를 거니는 산보자들을 화려하면서 무자비한 파리에서 발견한다. 벤야민의 산보자들은 초기 마르크스의 인본주의를 부활시킨 르페브르에서 도시혁명의 실천자로 모여들고, 드보르에서 스펙터클한 자본주의에 대항한다. 카스텔은 르페브르를 공간적

물신주의로 비판하고 알튀세르를 도시분석에 끌어들인다. 정통마르크스주의를 부활시켜 도시와 공간을 분석하고 희망의 공간을 제시한 하비에 이어, 버먼에 이르면 마르크스주의는 모험, 즉 책과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낭만적 여정이 된다.

1장은 마르크스의 삶과 사상의 성장 배경과 함께 마르크스의 몇몇 원고로부터 시작한다. 이 장은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논쟁 소재이면서 도시 마르크스주의의 구분점이기도 한 초기 인본주의적 마르크스에서 정치경제학적 마르크스로의 이동을 다룬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도시화를 파우스트적인 힘으로, 즉 창조적이지만 파괴적인, 문명적이지만 야만적인, 활동적이지만 불안정한 힘으로서 환영했다. 2장은 마르크스에 이어 도시 마르크스주의를 완성한 프리드리히 엥겔스를 다룬다. 여기서 저자는 엥겔스가 산업화의 운동법칙과 도시화를 연결하고, 자본축적과 계급적 역동성을 도시 개발의 모델 속에서 어떻게 엮어 나갔는지 고찰한다. 3장에서 저자는 “세속적 계몽”을 담은 벤야민의 도시, 일상적 도시의 신비스러움을 갖는 벤야민의 도시를 그려낸다.

68세대의 정신적 지주 중 한 사람인 4장의 르페브르는 변증법적 연구를 “공간의 생산”과 “도시혁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저자는 여기서 오랫동안 단절되어 온 초기 인본주의적 마르크스의 부활을 본다. 르페브르의 사상은 5장에서 드보르가 선도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파괴적 정치집단, 즉 상황주의자들에 의해 고양되고 발전된다. 6장에서 카스텔은 초기의 인본주의적 마르크스를 폐기하고, 대신 후기의 정치경제학적 마르크스주의와 알튀세르의 반인본주의를 택했다. 여기서 저자는 재생산영역으로 도시를 부각시키고 “도시사회운동”의 투쟁 동인을 제시한 카스텔의 도시마르크스주의를 다룬다.

저자는 7장에서 하비에 대한 엥겔스의 영향을 파악하고, 대규모 시장 체제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면모를 포착한다. 그리고 하비의 마르크스주의적 현실주의,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에 관한 비판적 개입, 그리고 최근 이상향적인 꿈들을 상세히 살피나

간다. 8장 마살 버먼의 도시세계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모험과 낭만의 여정이 된다. 저자는 그를 방랑자 같은 도스토예프스키적 마르크스주의자, 즉 생동감 있고 폭넓은 비평가로 자리매김한다.

후기에서 필자는 결론들을 종합하면서 마르크스주의적 도시주의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가 여전히 세계에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도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자는 바일스의 말을 빌려 “다소의 휴식기가 지난 뒤에 텍수염 난 현자가 다시 돌아올 것이며 다시 유행할 것”이라고,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운동의 순간이 무르익기 시작할 것이라고 희망한다.

이 책의 독자가 저자의 이런 희망에는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현대 도시의 모순을 회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도시의 지금 이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고자 희망한다면, 그리고 숫자와 도면으로 표현된 도시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것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힘을 담아내지 못함을 안다면, 저자의 마지막 훈수를 귀담아 들을 만할 것이다.

“스스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주목하고 그들을 독해하라. 스스로 도서관에서 혹은 서점에서 『경제학 철학 수고』, 『독일 이데올로기』, 『공산당 선언』, 『자본론』 1권, 그리고 엥겔스의 『노동계급의 조건』, 『주택문제』를 찾아보라. 그리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그리고 신중하게 공부하라.”